

11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중국발 호재.. 다우 0.4%↑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음. 톨 브라더스의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택건설주가 급등하며 투자 심리를 북돋웠음. 다우 지수는 44.29포인트(0.43%) 상승한 1만291.26을, 나스닥 지수는 15.82포인트(0.74%) 오른 2166.9를, S&P 500 지수는 5.50포인트(0.5%) 상승한 1098.51을 각각 기록. 이중 다우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출발.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미국과 영국의 통화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저금리 기조 등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음.
중국 경제지표 개선.. 주요국 `저금리 기조` 확인도 投心에 도움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됐음. 중국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 19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음. 또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무역흑자는 9월보다 2배 많은 240억달러에 달했음. 특히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처럼 글로벌 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이 저금리 기조 등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피력한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전날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와 리차드 피셔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등 미국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은 `저금리 기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머빈 킹 총재도 추가적인 채권 매입 가능성을 언급, 영란은행이 저금리 기조는 물론이고 양적완화 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음.
톨 브라더스 실적호재 에 주택건설株 랠리	미국 최대 럭셔리 주택건설업체인 톨 브라더스가 실적호재로 16%나 급등했음. 톨 브라더스의 4분기(8~10월) 매출은 전년비 30%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향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계약건수도 4분기중 42%나 급증했음. 웰스 파고는 이같은 실적개선을 반영해 톨 브라더스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했음. 톨 브라더스의 로버트 톨 CEO는 "회사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음. 3년만에 흑자로 전환해 전날 급등했던 주택건설업체 비저 홈즈도 이날 다시 12%나 올랐고, KB홈즈와 호다. 급등했다. 분기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음. 이외에도 KB홈즈와 호브내니언 등 주택건설주 전반이 큰 폭으로 올랐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반등..중국발 재료 영향	국제유가가 11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음. 중국의 10월 원유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3센트(0.3%) 상승한 79.28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발 수요 회복기대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음. 중국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 19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음. 또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무역흑자는 9월보다 2배 많은 240억달러에 달했음. 특히 중국의 10월 원유수입이 사상 2번째로 많았던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음. 국제유가는 오전 한 때 배럴당 80달러선을 터치하기도 했음. 그러나 장중 미국 달러호가 반등세로 돌아선 반면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하자, 국제유가는 오후들어 상승폭을 축소했음.
HP, 쓰리콤 인수..`시 스코에 도전`	휴렛팩커드(HP)는 네트워크장비 업체인 쓰리콤(3COM)을 인수해 업계 1위 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에 도전함. HP는 11일(현지시간) 쓰리콤을 현금 27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주당 인수 가격은 7.90달러로, 쓰리콤의 이날 종가보다 39%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임. HP는 쓰리콤 인수를 통해 네트워크장비 시장에서 시스코와 본격 경쟁한다는 전략임. 한편 HP는 회계연도 4분기에 주당순이익 1.1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1.11달러를 소폭 웃돈 수준.
중국, 위안화 절상 가 능성 시사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음. 보고서는 대신 "국제 자본의 유입과 주요 통화 가치의 변화에 대해 위안화 환율 구성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음. 인민은행 보고서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해 움직이도록 한 페그제를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특히 보고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됨.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18일 방중 기간 동안 환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음. 중국은 수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달러-위안 환율을 6.83위안대에 고정시켜 왔음. 그러나 이로 인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날 중국은 10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3.8% 줄었다고 발표.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감소폭은 꾸준히 줄고 있음. 같은달 수입은 6.4% 감소, 무역흑자는 240억달러로 집계되며 지난 9월의 2배를 기록했음. 또 10월 공장생산은 16.2% 증가해 19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음. 정지치양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CIC)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의 문구 수정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